



사물놀이(4호F), 고창석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원

“건축”이 내 삶의 장이었다면 그림은 나의 존재를 자리매김시키는 사고의 생성물이라 여겨왔다.
 나의 그림은, 사물을 그린다=행위=사물을 지운다는 행위=사물화작업의 행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질문은 접어두고 그냥 이렇게 이러한 작업을
 끈질기게 해보려는 자신의 의지표현이라면 설명될 수 있으리라.
 아무튼 나에게 있어 그림작업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지의 표현이라 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즐겨보고 싶으니까……

우정은 이내 온가슴을 차지하고 있지만

A Heart full of Simple
Friendship

尹汝郁/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우정은 이내 온가슴을 차지하고
여윈 덧철을 지우고 있지만
하나, 둘 그리고 셋 초석을 다질 즈음
자연은 그 부드러운 호흡으로 우릴 살핀다.

뒤켄 한구석에 남아있는 우정의 흔적이
거친 바람, 비, 눈속에 스러져갈 때
태양의 환희 그마저도 옛꿈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말았으니……

우정과 우정을 통한
생의 대화는 이름모를 유리벽에 막혀
그 소리를 잃었으나 사람과 자연의 무한 대화는
이 순간에도 저 바다와 그 위를 씬없이 넘나든다.

우정은 신록속에 만가지 색으로
이내 가슴속을 차지하지만
주인 잃은 도덕심은 타락의 명예로 술한
연민과 수치의 산터가 되었다.

서로를 향한 사모의 눈길과
그를 지켜내리는 우정의 안간힘들
이미 준비되었던 홀연한 벽에 치어
맥없이 울먹이는 의지가 되었다.

아 들어라
감출 수 밖에 없는
위선과 체면으로 점철된 나날들……
아 들어라
입에서 입을 통한 결코 부활치 못할 찌꺼기들…
이제 떨쳐 버리리라
모든 것을 떨치리라……